

윤서현 박사 콜로키움:

체호프 드라마와 ‘이야기로서의 인간’(Драматургия А.П. Чехова и «человек-нарратив»)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는 지난 3월 26일, 러시아연구소 자료실에서 윤서현 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 문학)를 모시고 “체호프 드라마와 ‘이야기로서의 인간’(Драматургия А. П. Чехова и «человек-нарратив»)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윤서현 박사에 의하면, 체홉 드라마 속 등장인물(действующие лица, 행동하는 인물)은 모방원리에 천착하지 않는다. 작가는 등장인물의 발화행위를 엮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보다는 등장인물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장면들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암시한다. 이에 윤서현 박사는, 체홉 드라마의 특징을 무엇보다도 인간을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내리는 존재로 이해하는 체홉의 인간관이 드라마의 미메시스 중심 서사구조와 일으키는 마찰의 결과로 이해하면서, 80-90년대 그의 소설 중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액자식 소설의 변화양상에 주목하였다. 발표자는 체호프 창작 초기에 중시되었던 이야기하는 인물에 대한 묘사가 점차 이야기 듣는 인물들과 그들을 포함한 이야기 사건 자체에 대한 묘사로 그 방점을 옮기고 있음에 주목하고 개개인을 이야기 담지자, 잠재적 화자로 인식하는 체호프의 인간관을 확인하였다.

